

# 치 사

노동부장관 조 철 권

친애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회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한산업보건협회 85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 년대 초반, 산업보건의 필요성을 인식한 몇분의 선각자들이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설립하여 지난 20 여년간 미흡한 제도과 여건하에서 산업보건을 주도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의 원동력이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온데 대하여 본인은 800 만 근로자와 더불어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이제는 복지사회건설과 선진조국창조의 국가적 과제를 온국민이 합심하여 추구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물론 2 천년대의 1인당 GNP 5 천불 달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개발도입되고 여러가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제조 또는 사용됨으로써 각종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5 만 8 천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이중 1 천 7 백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직업병 이환자도 6 천 3 백여명에 달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7 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은 산업재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불행은 물론 해당기업과 나아가서는 국가사회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산업재해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 5 공화국 출범과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이미 1981 년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이에 근거하여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이 정착되면서 그간 높은율을 보이던 일반질병자 발현율이 84 년에는 3.7 %로 둔화되었고, 직업병유소견자수도 2.8 %로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던 산업재해도 83년부터는 그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84년도에는 재해율이 9.5%나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말에는 7만 광산근로자의 숙원이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앞으로 진폐의 근원적인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유해화학원료의 무분별한 도입사용으로 유해업무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직업병진단기술도 계속 발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업무야말로 노동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라고 판단되며 그 중요성과 예방 대책은 아무리 강조 되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노동행정의 중책을 맡은 본인은 앞으로 노동행정을 추진해감에 있어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에 대하여는 그 어느 분야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지만 우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는 우리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인명경시 사상을 배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기업경영에서 재해의 예방이 곧 기업경영 개선의 첩경임을 인식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화 하고 재해가 발생되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를 부끄럽게 아는 풍토가 조성될 때, 참다운 재해예방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만 귀협회에서도 이와같은 풍토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이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금과 같이 각종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열의만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으므로 건전한 전문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친 전문인력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귀협회와 같은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긴밀한 상호연계체계를 유지하면서 과학적인 지원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전문단체도 이와같은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맡은바 소임에 진력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예방의 최일선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예방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전문성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건관계자 직무교육을 맡고 있는 귀협회에서는 이들이 사업주를 보좌하여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간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전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귀협회에 거는 기대는 실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협회는 지금까지의 기반을 토대로 더욱 발전과 정진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간의 다소 미흡했던 조직체제와 운영형태 등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수 있도록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예방을 위한 제반 미흡한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오늘 대한산업보건협회의 85년도 정기총회를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5년 2월 28일

